

중간재 업체도 브랜드 도입 '붐'
(2004. 9. 23)

제지, 시멘트, 전자재 등 중간재 업체도 브랜드 도입 및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종 소비자보다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을 판매하는 중간재 업체들이 브랜드 전략에 나선 것은 회사홍보에 간접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중간재도 마케팅 성과에 따라 소비자 유치에 효과가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국제지는 모든 제품에 사용할 대표 브랜드인 '하이퍼'를 최근 도입해 마케팅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High Quality Paper의 약자인 Hiper는 '최고를 향한 열정과 진취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한국제지 관계자는 설명했다. 큰 새가 활짝 날개를 편 모습을 형상화한 하이퍼 심볼마크는 더 큰 세상을 향해 출발하는 도전의지를 표현하고 있다. 시멘트업계도 드라이몰탈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관련 브랜드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 한일시멘트가 업계 최초 드라이몰탈을 공급하면서 '레미탈'이라는 이름을 히트시킨 가운데 동양시멘트, 성신양회, 아세아시멘트도 차별화된 브랜드를 도입한 상황이다. 전자재 전문업체인 동화기업도 대표 브랜드인 '동화자연마루' 마케팅 강화에 나섰다. 동화기업은 전국의 장식점 및 인테리어점 관계자를 대상으로 10월말까지 2개월간 자사 특정제품을 판매할 때마다 황금 한돈씩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점유율 유지가 필요한 중간재 관련업체들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면서 "특히 후발업체인 경우 브랜드 전략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부, SOC사업에 25.7조원 투입
(2004. 9. 25)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SOC)사업에 예산 16조 9,588억원과 기금 10조 5,677억원을 합쳐 총 27조 5,265억원이 투입된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의 27

조 568억원보다 1.7% 늘어난 것으로 내년도 예산과 기금의 총지출 증가율 6.3%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일반회계 131조 5,000억원, 특별회계 64조 2,000억원, 기금 320조원 등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올해보다 일반회계는 9.5%, 특별회계는 7.5%, 기금은 7.3% 각각 늘어난 것이다. 내년 폐지되는 철도사업특별회계와 내부거래, 공적자금 상환 등을 제외한 총 지출규모는 예산 146조원, 기금 62조원 등 총 208조원으로 올해의 196조원보다 6.3% 증가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성장잠재력 확충, 삶의 질 향상, 지방분권·균형발전, 자주국방과 남북협력, 행정서비스 혁신 등 5개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분야별로는 통일외교에 올해보다 40.7% 늘어난 1조 9,000억원을 편성했고 사회복지 37조원(14.4%), 환경 4조원(13.6%), 문화·관광 2조 5,000억원(11.1%), 국방 20조 8,000억원(9.9%), R&D 7조 8,000억원(9.9%), 지역균형발전 5조 5,000억원(9.6%), 농어촌 13조 4,000억원(7.5%), 사회안정 8조 1,000억원(7.1%), 교육 25조 9,000억원(5.7%) 등으로 배정했다. 반면 SOC는 27조 5,000억원으로 증가율이 1.7%에 그쳤고 산업·중소기업은 11조 2,000억원으로 1.6%가 감소했다. 특히 SOC의 경우 예산사업은 16조 9,588억원으로 올해의 16조 7,745억원보다 1.1% 늘었고 기금사업은 10조 5,677억원으로 올해의 10조 2,823억원보다 2.8% 증가했다.

**시멕스사,
세계 최대 레미콘社 RMC인수**
(2004. 10. 4)

세계 3위의 시멘트 메이저인 시멕스(Cemex, 벅시코)사가 지난 9월 27일 세계 최대 레미콘 회사로 시멘트 공장도 보유하고 있는 RMC(영국)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인수방식은 41억달러를 투자하

여 RMC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2004년내 인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RMC(Ready Mixed Concrete)社は 본국(영국) 외 독일, 동구, 미국, 호주에서 레미콘 사업과 병행하여 시멘트, 골재 사업을 전개하는 세계 최대의 레미콘회사로서 지난해 시멘트 판매량 1,570만톤, 레미콘 5,550만³, 골재 1억 5,800만톤을 출하하였다. 이번 인수를 계기로 시멕스사는 매출액 150억달러로 매출액면에서 홀심(Holcim, 스위스)社를 제치고 라파즈(Lafarge, 프랑스)社에 이은 세계 2위로 부상하였다. 시멘트 판매 규모는 8,000만톤으로 확대되었으나 판매 규모면에서는 라파즈(Lafarge, 1억 8천만톤), 홀심(Holcim, 9,430만톤)에 이어 3위에 올랐다. 이번 시멕스사의 RMC 인수합병은 2001년의 라파즈사에 의한 블루서클(Blue Circle, 영국)社 인수에 뒤이은 세계 시멘트 업계의 대형 재편이기도 하다.

시멘트업계

폐열회수발전시설 도입 잇따라 (2004. 10. 5)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어섰고 시멘트수급 약화로 일부 공장이 생산중단 사태에 직면하면서 국내 시멘트업계가 '폐열회수발전 시설 도입'을 통해 채산성 강화에 나섰다. 아세아시멘트는 4일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충북 제천공장에 폐열회수발전 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포스코 건설이 맡아 진행중인 건설작업이 완료될 경우 아세아시멘트는 연간 13억원의 에너지 절감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일시멘트도 폐열발전시설 건설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한일시멘트는 지난 9월 일본 미쓰비시 머티어리얼사와 시멘트 제조기술과 폐기물의 자원화기술 등을 포함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앞서 동양시멘트는 강원 삼척공장에 지난 2002년 7월부터 약 229억원을 투입해 폐열회수발전소 건설을 마치고 지난달 1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회사측은 이번 가동으로

인해 연간 50억원의 투자효과를 보고 향후 4년 후에 투자비를 모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 최초 폐열발전시스템을 도입한 라파즈한라시멘트는 폐열발전을 통해 연간 20억원 이상을 절감하고 있다. 현재 2, 3호 증설라인에 지난 1992년 국내 처음 폐열발전 설비를 설치 운용중인 라파즈한라는 해당라인 전력량의 20%를 충당해 상당한 원가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폐열회수발전소는 시멘트 생산과정에 나오는 고온의 열풍을 폐열 회수보일러의 열원으로 사용해 고온, 고압증기를 생산한 뒤 이를 증기터빈 발전기에 공급해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다.

중국, 인도, 러시아 시멘트시장 급부상 (2004. 10. 14)

경제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중국을 비롯해 인도, 러시아 등이 국제 시멘트시장으로 급부상, 대형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세계 제3위의 멕시코 시멘트 제조업체 시멕스(Cemex)가 중국과 인도, 러시아에 적극 진출할 의사를 밝혔다. 시멕스의 이같은 외국진출 발표는 영국의 대형 시멘트업체 RMC그룹 인수 계획을 밝힌 지 2주만에 나온 것이어서 관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시멕스사의 로렌소 삼브라노 사장은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인도와 중국, 나아가 러시아까지 포함해 조만간 진출하고 싶은 국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삼브라노 사장은 또 "우리는 중국과 인도에 관해 시장 차원은 물론 지역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면서 "경쟁업체들의 비용, 가격 그리고 해당국가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 및 인도 업체 인수에 나설 계획을 시사했다. 그는 그러나 진출 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세계 최대 시멘트업체 등극을 노리는 시멕스의 사업팽창 계획은 이 회사의 부채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현상태로는 뚜렷한 목적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외신은 전했다.

다. 현재 시멘트는 미주 대륙을 비롯해 유럽, 카리브해, 아시아,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 사업망을 갖고 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 지정,
주민의견 반영해 달라”**

(2004. 10. 16)

백두대간보호법 반대투쟁위원회가 지난 15일 환경부를 방문, 광결호 환경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명구위원장 등 전국 5개 광역자치단체 반대투쟁위 대표자 10명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작업한 도면대로 백두대간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사유지가 편입될 경우 반드시 현시가에 따라 보상하고 국유지라도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과감히 제척하라”며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이 낙후된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반대추진위는 이와 함께 현재 국무총리를 포함, 광역자치단체장 등 23명으로 구성돼 있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지정 심의위원회에 일반 주민들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광장관은 “백두대간보호법 제정과 관련해 법률상의 내용중에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산림청과 충분히 협조를 통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반대투쟁위 각 광역자치단체 대표들은 이달중에 별도의 간담회를 갖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후이콩치 시멘트사,
3분기 순익 31.5% 감소**

(2004. 10. 18)

중국 최대 시멘트 생산업체인 안후이콩치시멘트사는 경기과열업종에 대한 정부의 투자억제책으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올 3분기 순익이 전년비 31.5%

감소한 1억 3,163 만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국정부는 지난 3월 부동산, 자동차,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을 과열산업으로 분류해 투자를 억제시키기 위한 일련의 거시경제책을 내놓았다. 한편 1~9월 순익은 123.1% 급증한 9억 2,355 만위안, 매출은 65.2% 증가한 58억 7,600 만위안에 달했으며, 특히 투자수익이 641.5%로 크게 뛰어올랐다. 1~9월간 시멘트 및 크링카 판매량은 2,462 만톤으로 전년비 37.8% 증가했고, 이중 크링카만 1,006 만톤이 팔렸다.

**SOC사업 조속 추진해야,
전경련 건설경기 활성화 10개항 건의**
(2004. 10. 19)

전경련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관련 10개 단체와 공동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10개항의 대정부 건의서를 통해 “건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15%에 달해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실업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건설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우선 건설업계가 제안한 SOC 민간투자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최저 낙찰가제’ 확대 계획을 유보, 현행대로 500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에 따른 정부발주 공사의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현행 5% 이상 물가변동에서 3%로 완화하고 단일품목의 급격한 가격 등락 때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북한산 골재 반입 절차 간소화 등 중장기적인 골재 수급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재건축 사업에 대한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아파트 가격 상승 억제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 재건축사업 규제 강화 등 정부의 건설정책이 업계의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택이 매년

40만~45만호씩 안정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면 주택 가격은 오히려 급상승하고 서민경제의 부담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모건스탠리, 中 시멘트 합작사에 5천만달러 투자 (2004. 10. 25)

세계적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중국 시멘트 업체 지난(濟南)산수이 그룹과 합작사를 구성, 5천만달러(미화1달러=8.3위안)를 투자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수이 그룹 관계자는 모건스탠리가 합작사 지분 30%를 소유하게 되며 산수이 그룹이 합작사의 시멘트 원료 공급을 담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작사는 해외 시장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수이 그룹은 31억위안의 자산규모로 2003년 214억위안의 매출을 올리면서 전년비 1억 6,000만위안(59.22%)의 순익 상승률을 기록한 연산 3백만톤의 시멘트 업체이다.

KDI, 건설투자 위축 심화 가능성 (2004. 10. 26)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월간 경제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난 2년간 높은 증가세를 보여온 건설투자 실적이 올 상반기에는 완만하게 둔화되고 있으나 건축공사와 관련된 선행지표들이 보다 급속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건설투자의 둔화세가 건축공사를 중심으로 심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지난 2년간 감소세를 보였던 토목공사가 올 2/4분기에 증가세로 반전하면서 건설경기의 급락을 부분적으로 완화시켜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는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단기적 경기순환의 측면에서 볼 때 향후 우리경제에는 수출 및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한 경기둔화 요인과 설비투자 및 소비를 중심으로 한 완만한 경기회복 요인이 혼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 불안

심리에 대해서는 불안의 요체는 단기적·순환적 요인보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기업·소비자의 심리 악화와 장기금리의 하락은 자신감 약화의 예라고 진단했다. 수출 전망에 대해서는 2/4분기 이후 미국 및 중국이 긴축기조로 전환하고 있고 유가 급등이 겹치면서 수출수요 급증세를 이어나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수주 26개월만에 3조원대 추락 (2004. 10. 29)

건설수주가 9개월째 큰폭으로 감소하며, 건설경기가 빠르게 냉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수주 금액은 26개월만에 4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산업생산 증가율은 8개월만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경기 선행지수는 6개월째 하락하며 실물경기가 완연하게 하강국면으로 진입했음을 시사했다.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9.3% 증가하며, 지난 1월 4.7% 이후 8개월만에 증가율이 한자리수로 떨어졌다. 전월비로는 2.3% 늘며 비교적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증가세 반전이 기대됐던 도·소매판매는 자동차·연료판매가 증가한 반면 소매업과 도매업에서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0.7% 줄었다. 회복세를 보이던 설비투자도 0.7% 감소해 5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부문 침체도 심화됐다. 향후 건설경기를 반영하는 건설수주가 29.2% 감소하며 9개월째 큰폭의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9월 건설수주 금액은 3조 9,900억원을 기록해 2002년 7월 3조 7,658억원 이후 최초로 4조원 아래로 떨어졌다.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향후 경기전환 시기를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나란히 6개월째 감소했다.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각각 전월대비 0.2%p, 0.1%p 감소했다. 특히 선행지수가 6개월 연속 감소해 경기가 완전히 꺾였음을 시사했다.

**건설투자 감소가
제조업체 동반침체 불러**
(2004. 11. 1)

산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건설경기가 제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에 따르면 건자재 등 제조업 산출물이 건설산업의 중간재로 대량 사용됨에 따라 건설경기 침체가 연관산업의 동반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건설경기가 위축됐던 지난 1998~2000년 3년 동안의 건설투자 18조 8,012억원의 감소는 제조업 생산과 취업자수를 각각 11조 9,910억원, 6만 8,167명 감소시켰다고 분석했다. 이 기간동안 건설투자 감소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산업은 철강, 금속제품 및 시멘트 콘크리트제품으로 2000년 산업연관표 기준으로 3년 동안 △철강이 2조 4,890억원 △금속제품이 1조 6,200억원 △시멘트 콘크리트제품이 1조 5,940억원의 생산감소 효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의존도가 높은 11개 산업의 성장률은 1991~1997년 동안 연평균 6.9%에서 1998~2000년에는 연평균 -0.4%로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산출액으로 볼 때 건설부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산업은 시멘트 콘크리트제품이 98.0%로 가장 많았고 석제품을 포함한 기타 비금속광물이 59.8%로 뒤를 이었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제조업 영향력이 큰 건설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져들 경우 내수위축은 물론이고 연관산업의 동반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향후 10년간 연평균 주택수요 45만호
(2004. 11. 1)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45만 4000호의 주택수요가 발생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수도권 지역의 연평균 주택수요는 절반 가량인 22만호로 추정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출생률 저하, 가구원수 감소, 가구구조의 변화, 노인인구 증가 등의 인

구적 요인과 소득증가로 인한 교체 및 세컨드하우스(Second House) 수요 증가 등의 경제적 요인, 노후불량주택 철거 및 자연재해 등 기존주택멸실에 따른 물리적 요인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 연평균 주택수요는 45만 4000호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99년 이후 2003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인 52만 4000호의 86.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오는 2008년까지는 39만호로 줄어드는 등 2005~2010년까지 연평균 약 41만호가 그치던 주택수요가 2011년 이후 총 50만호 수준까지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고 연구원은 내다봤다. 기간별 연평균 수요 예상 증가율은 2005~2010년 1.3%, 2011~2015년 3.4% 등이다.

**"주관적 판단 근거로 공장설립허가
반려는 부당"**
(2004. 11. 6)

환경피해와 집단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 판단을 근거로 공장허가 설립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6일 S산업(주)이 경기도 안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설립승인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미콘공장이 들어설 경우 소음이나 분진 등이 발생해 인근 주민과 농경지, 기업체 등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관적인 사정만을 근거로 공장설립을 제한한 것은 잘못"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측의 환경오염물질 방지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피고측 주장 역시 공장을 설립한 이후 운영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이라며 "공장설립단계에서 공해방지 사업계획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을 근거로 공장설립을 거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화공단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는 S산업은 안산과 수원외의 경계지점인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수인산업도로(42번국도)변 신일산업 공장부지 9,920㎡에 공장설립을 신청했으나 시(市)가 지난 4월 반려

하자 소송을 제기했었다.

라파즈한라시멘트, 협력업체 안전교육 앞장 (2004. 11. 8)

라파즈한라시멘트가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라파즈한라시멘트는 8일 게르하르트 뢰저 사장이 최근 협력업체의 안전교육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함에 따라 협력업체 전담 안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라파즈한라는 강원도 옥계 본사의 안전보건팀과 서울사무소 담당팀을 합동 태스크포스팀으로 구성해 효과적인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프로그램을 준비중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오는 12월 중순께 본격 가동될 전망이다. 라파즈한라 관계자는 “과거 피상적인 수준의 협력업체 대상 안전교육을 지양하고 단기간에 집중교육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내년 건설수주 84조 3천억원 1.0% 감소 (2004. 11. 9)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2005년 건설·부동산경기 전망」세미나에서 백성준 부연구위원은 “내년 건설 수주는 올해에 비해 1.0% 감소한 84조 3천억원에 그치고 건설투자 역시 1.8% 감소한 117조 3천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올해 건설 수주는 공공 토목 부문 공사발주 지연으로 당초 예상보다 물량이 줄면서 공공부문이 3.2%, 민간부문이 23.1% 각각 감소, 전체적으로는 작년대비 16.8% 감소한 85조 2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수주 전망액을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은 30조 8천억원, 민간부문은 53

조 5천억원으로 올해에 비해 각각 1.1%, 1.0% 각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종별로는 토목수주의 경우 민간부문 증가에 힘입어 7.8% 증가하겠지만 건축수주는 비주거용이 10.7% 급감하면서 전체적으로 5.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백 부연구위원은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과잉공급과 상가 후분양제 도입의 영향으로 민간 비주거용 건축이 크게 감소하고 신행정수도 이전 위헌 판결로 충청권의 수주 활황세가 위축됨에 따라 내년 건설수주는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계銀, 올해 한국 GDP 성장률 4.9%로 하향 전망 (2004. 11. 10)

세계은행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5.3%에서 4.9%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5.3%에서 4.4%로 낮췄다. 한편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중국의 눈부신 경제발전 등에 힘입어 올해 7%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1년에 두 차례 발표되는 이 보고서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률을 7.1%로 전망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의 성장률은 7.9%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세계은행은 그러나 고유가와 선진국의 저성장 기조, 하이테크 및 공산품 업계의 침체 등으로 인해 이 지역의 내년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 호미 카라스는 “2004년은 강력한 성장기조를 보였지만 최근의 지표는 동아시아 지역의 경기 회복세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고유가가 이 지역의 내년 성장률을 0.5~1% 포인트 가량 낮추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면서 “필리핀과 태국, 한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